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1주일
제31권 1호(가해) 2010·11·28

[묵상]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
<1998년, 석회석, 요크대성당, 요크, 영국>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세상사에 몰두하느라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워서
하느님은 뒷전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곧 오신다고,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하십니다.

둘이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하나를 거저 데려가지 않으시는
면밀하게 선별하실 당신이기에
오실 때를 맞추어 깨어난 요행도
당신께는 소용없음을.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학생처럼
그날을 준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옳다고 여겨주시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든 아무 상관없게 말입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면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침미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애	오전 10:00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8: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오전 중
	아도라떼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2:30
	3째주 -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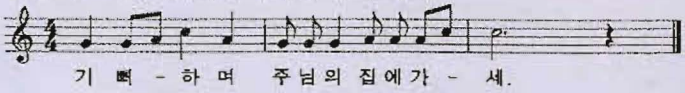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발리스타 (310)326-4350 Ext.102
총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수환 추기경, 오준석 요셉&김명옥 로즈마리, 이희곤, 장숙환 수산나, 김연옥 루시아&박현주 아네스, 홍관 요셉, 한금용 요한&김옥녀 마리아, 김금구&유봉순 안나
	(생)박연우 크리스티나 & 박규하 니콜라스, 이원영 로즈마리 & 오서영
주 일 낮 미사	(연)윤춘의 스콜라스티카, 홍주희 안나, 이은완 야고보, 서인수 요셉, 고준희 제임스, 장현숙 발바라, 신현태, 도널드 브라운, 엄은섭 도로테오, 김종열 아가비도, 이현호 요한, 김형태 야고보,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오월봉 데레사, 전상근 루까
	(생)이재용 안드레아, 송유석 안드레아, 차인수 안드레아, 김종우 안드레아, 김앤디, 김재민 알렉스, 강지은 안젤라, 정학순 발바라, 이민형 미카엘라, 송호민 & 김나영 가정, 변정선 안젤라, 유현자 안나, 엄영숙 마리아, 김은 안나,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세.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2-20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 음 마태오(Matthew) 24,,37-44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23	124
봉헌	264	269
성체	391	305
파견	130	132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안락사의 비극

64). 인생 여정의 다른 한쪽 끝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신비와 마주치게 된다. 오늘날 의학 발달의 결과로, 그리고 흔히 초월성에 대해 닫혀있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죽음의 체험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삶의 가치를 오로지 쾌락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한도 내에서만 평가하는 경향이 만연한 이때에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좌절처럼 보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벗어나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아직도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향해 열려있는 삶에 갑자기 개입하는 죽음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단 삶이 고통에 찬 것이 되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되면 죽음은 "당연한 해방"이 된다.

더구나 인간이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때, 인간은 자신이 자기의 규칙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체적이고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보장해 주도록 사회에게 요구할 권리를 주장한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지속적인 의학의 발전과 더욱더 발전된 과학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할 더욱 큰 용기를 얻고 있다고 느낀다. 오늘날 과학과 의술은 고도로 발달된 첨단 장비와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경우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또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허약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적인 생물학적 기능들이 갑자기 무너진 환자들을 인공적으로 소생시킬 수도 있게 되었고, 신체 기관들을 이식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한 과정들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락사에 의지하려는 유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안락사란 죽음을 조절하여,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안락사를 잘 살펴보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더욱 위급한 증상 중의 하나와 부딪히게 된다. 이 문화는 무엇보다도 부유한 사회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성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짐스러운 일로 여긴다. 이 사람들은 대개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된다. 가족과 사회는 거의 오직 생산성이라는 기준 위에 조직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생명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

65). 안락사에 대해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필요하다. (◆계속)

대림절='이미'와 '아직'의 시기='깨어있음'의 시기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敎會曆)으로는 새해의 시작이자 세속력(世俗曆)으로는 묵은 한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잘 대변해줍니다. 즉,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아직' 오셔야 하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은 온갖 고난과 욕망의 질곡을 살고 있는 세속의 자녀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대림절의 진리를 완전히 새롭게 배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림절의 진리란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대림절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직'도 대림절임을 말합니다. 즉, 달리 표현하자면, 인류 전체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임을, 인류 전체가 어두움에 놓여 있지만 하느님의 빛을 받고 있다는 것임을 말합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시기인 대림절은 또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라 …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24,42.44)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만 있다면, 승진할 수만 있다면, 월세와 전세를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만 있다면, 안정된 노년을 살 수만 있다면, …

이렇게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또 새로운 걱정거리는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싶다는 욕망을 우리 안에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드높은 명예를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라고 해서 우리 자위를 전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세속의 '절대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새롭게 기운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두움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어 주시는 자비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겸손하게 오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묵은 지난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기에 한 번쯤 여유를 갖고 우리 안을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안경 삼아 우리 주변을 둘러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깨어' 사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 곧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진향 아녜스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야	박진수 스태파노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대림 시기 ✝

오늘은 가톨릭 교회력으로 한 해의 전례주기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가해)입니다. 오늘 첫번째 대림초를 켜면서 앞으로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기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 없이는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로 향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시기의 영성입니다.

◈ **병자 영성체 :** 12월2일(목) 오전 10시부터

◈ **성 시 간 :** 12월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북구역

◈ **성모 신심 미사 :** 12월4일(토) 오전 8시30분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21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미사전후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낮시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보속 : ㉠마태오복음서 통독 ㉡선행1회 ㉢주모경 기도 중 두가지 선택

◈ **본당 신부님 판공출장 관계로 평일미사 시간 변경**
- 14일(수), 15일(목), 22일(수) : 오전 8시30분
이 날은 저녁미사가 없습니다.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주제(Theme)'공모 오늘 마감**

2011년 2월6일로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떤 주제(Theme)를 행사표어로 삼을 것인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오늘 주일(28일)까지 공모합니다. 내용은 영적성숙, 감사, 일치, 미래지향 등…을 표현한 것이면 되겠습니다.
- 당선작에는 '깜짝 놀랄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신자 대상 대림 특강**
- 일시 : 오늘 주일(28일), 12월5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
- 내용 : 성경공부반 개설을 앞두고 성서 전반에 관한 강의

* 강의후 이어서 11월 사목회의 합니다.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12월5일(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교우들께선 이날 따로 마련된 봉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골프회 송년 토너먼트**
- 일시 : 12월11일(토) 오전 9시20분
- 장소 : 롱비치 Recreation Park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323-8100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한해를 마감하면서 백삼위 골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새로 개정된 메디케어 & 메디칼 건강플랜 설명회**

2011년에 새로 개정되는 Medicare & Medical 건강플랜 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새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보험전문가)
- 일시·장소 : 12월12일(주일)오후 1시, 강당
- 내용 : 65세이상 은퇴자, 노약자, 장애인 대상. Part C(MA), Part D(PDP), Madicare Supplement Plans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 장애인복지회
- 연락처 : 노장오 요셉 회장 ☎(213)387-3301,
조면식 바르톨로메오 총무 ☎(213)479-0066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 12월12일(주일) 오후 3시, 성당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28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 12월5일(주일) : 요셉회에서 맛있는 짜장밥을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대접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김기석 김상규 김양금 김영경 김재영 김정순 김찬구 김현숙 노찬술 노천수 박상준 박영룡 박인식 변복순 서성용 송호창 안태갑 엄정자 엄혜은 윤석구 윤화경 윤희동 이경용 이귀란 이용식 익 명 임 순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조소영 최수복 최원석 최의수 최재은 최현찬 한창주 황인종	**합계 : $3,775**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김기석 김양금 김찬구 김현숙 노찬술 노천수 박영룡 박인식 변복순 서성용 송호창 안태갑 엄정자 엄혜은 윤화경 이경용 이귀란 이용식 임 순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최원석 최의수 최재은 최현찬 한창주 황인종	**합계 : $2,405**
미사헌금 : $2,922.50		
감사헌금 : 이진행		

공지사항

◈ 추수감사절 연휴(오늘 주일 28일)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휴강

◈ 주일학교 성탄제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 대상: 유치부~12학년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백삼위 자모회 소식
- **기금마련 판매행사** : 12월4일 특전, 5일 주일미사후
  품목 :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 문의 : 윤은경 미카엘라 자모회장 ☎(323)717-4937
- **한국학교도 작은 선물코너를 개설합니다.**
- **주일학교 미사시간 지키기 티켓 상품교환 행사** :
  12월5일 주일수업 후 점심시간 친교장,
  그동안 받은 'Early Bird Ticket'을 꼭 가져오세요.
- **자모회 송년모임** : 12월3일(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RSVP : 김유미 사비나 자모회부회장 ☎(310)738-5305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배론 청년회 미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시다.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울뜨레아 송년의 밤
- 일시 : 12월4일(토) 오후 6시
- 장소 : LA 성 바오로 성당(1920 S. Bronson Av.)
- 주최 : 남가주 한인천주교 꾸르실료 사무국
- 문의 : 백삼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94-0276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Double Tree 호텔(13111 Sycamore Dr. Norwalk)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백삼위 ME 대표부부 ☎(310) 347-1665

이번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회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12/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1(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0(금) 오후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미카엘 316-7608 12/18(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진숙 로사 543-9051 12/13(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옥희 데레사 423-9075 12/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행선 율리아나 972-9193 12/8(수) 오전 10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김희연 루시아 750-4051 12/11(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 바오로 780-9055 12/26(일)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17(금)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1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 가브라 544-1009 12/2(목) 오전 11시30분

새해(가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권고 「가정공동체」 반포 20주년을 맞아 지난 2001년 10월 21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루이지(1880-1951)와 마리아(1884-1965)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변호사 남편과 전업주부였던 이들 부부는 네 자녀를 두었는데, 필립보와 체사레는 사제로서 부모님의 시복식 미사를 교황님과 함께 봉헌했고, 딸 엔리케타도 이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9월25일 로마 성 밖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는 교황청 시성성장관 안젤로 아마토 대주교(현재는 추기경) 주례로 '영웅적인 덕행'을 보인 10대 소녀 끼아라 루체 바다노(1971-1990)에 대한 시복식이 거행됐습니다.

17살에 악성골수암에 걸려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면서 투병생활을 시작한 그는 고통 앞에서 이렇게 반복해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온화함과 평화와 기쁨을 주면서, 18번째 생일이 가까웠던 어느 날 끼아라는 직접 의사에게 화학요법을 중단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정배인 예수님께로 향하는 달리기가 시작되었지요. 가족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결혼식'으로 표현된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였다면서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건 아름다운 일이었고, 하나의 경이로움"이었다고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시복식 다음날 삼종기도를 바치기에 앞서 청소년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가득히 순응했던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엄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기쁘니까 엄마도 기뻐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병과 죽음보다도 더 강했으니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도 젊은이들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동정녀 마리아께 감사를 드립시다."

한편 7년 전 시복식 장엄미사 강론을 통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루이지와 마리아 부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면서 무엇보다 성체성사가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고, 둘째 성모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녔으며, 셋째 저녁마다 부부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고, 넷째 주위 사람들에게 명시적인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는 평신도들의 성화소명(聖化召命)을 강조하면서 평신도들도 성인이 되라고 일깨워줍니다.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를 살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할까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므로.

◆최홍준 파비아노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태어나는 모든 인간 생명을 위한 밤 기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탄대축일을 앞둔 2010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제1 저녁기도에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태어나는 모든 인간 생명을 위한 밤 기도'를 거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금년 대림 제1주일 저녁미사를 "생명을 위한 미사와 밤 기도"로 봉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고 사람이 되시어 모든 인간 생명에 참다운 가치와 존엄을 부여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인간 존재를 하느님께서 보호하시도록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 생명을 위한 기도 -

○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평화의 모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